

All Nations Mission Center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www.anmcusa.org, anmcusa@gmail.com 859-312-2433, 2156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U.S.A
협력기관: Onnuri - OMA - TIMA - CGNTV

Refresh, 심터 · 새빛터
Revitalize!

교회와 선교리더십 회복

LOVE & CARE FOR CROSS-CULTURAL
WORKERS AND PASTORS



선교사·목회자 돌봄과 선교연구
MISSIONARY · PASTOR CARE &
MISSION RESEARCH

올네이션스 선교센터 사명

올네이션스 선교센터는 선교의 대위임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타문화권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차세대/제3문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멤버케어, 한국교회와 선교연구, 리더십 개발과 재교육을 한다. 이 사명은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ANMC 미국

"선교사-목회자 돌봄"에 참석한 선교사-목회자-사역자들과 2019-2022년에 ANMC를 다녀간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와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ANMC 필리핀

필리핀 올네이션스 선교교회의 새성전과 선교훈련센터가 꾸준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다 이루는데 잘 쓰임받도록, 예정된 시간에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MC 중동-북아프리카

영적 추수기인 중동 땅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난민 사역자들의 능력, 순결, 보호, 지혜를 위하여
제자훈련에 연결되는 MBB 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ANMC 한국

선교센터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중보기도와 후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비전 나눔 모임이 발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MC News

‘지구 반바퀴를 돌아 미국 애즈배리대학과 올네이션스 교회로’

- MK-TCK(Third Culture Kid) 고하영편 1부 -



이번 호와 다음 호 뉴스레터의 글을 나눠준 고하영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z 선교지로 갔다. 그곳에서 12년간 선교사자녀(mk)면서 목회자자녀(pk)로 성장하게 된다.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특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며 살아야 했다. 드디어 대학을 가고자할 때, 미국 켄터키주 애즈배리 대학으로 유학왔고 초등학교 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인 올네이션스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펼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교회와 올네이션스 선교센터를 통해 섬김받은 감동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을 따라 z국으로 갔다. 낯선 땅, 문화, 사람, 음식, 언어로 인해 무엇이든 부모님과 함께 적응하며 살았던 것이 기억난다. 생활한지 얼마되지 않아 강도 높은 지진으로 모두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랜 기간 운동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던 날들, 꼬불꼬불한 산길을 밤낮으로 이틀씩 달려가서 도착하는 시골 사역지 방문의 날들, 집안에 가족이 살고 있는 현지 가정집들이기에 현지 가정방문시 베틀에 물렸던 날들, 우리에게 제공된 잠자리가 집집마다 곡식창고였던 기억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만난 귀한 인연들과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가 없던 곳에서 선교사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련에 억눌리며 내 자신을 희생하고 외로움을 혼자 삭히는 것이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부담드릴까 힘든 것들은 말씀 안 드리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없었기에 쌓여갔던 마음의 병들이 올네이션스교회를 나오며 조금씩 치유되었다.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mk들을 만나 교회 공동체로 하나되게 하시고 큐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해 주신 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원

한국

국민은행 : 524901-01-127780, 임혜련

미국

Check : Payable to "ANMC"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동역 후원자들

올네이션스선교센터는 복음주의적이며 초교파적인 비영리 선교단체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President's Council

Rev. Jaehoon Lee

Rev. Yonyong Park

Rev. Misook Kim

Hyekyung Lee

Advisory Council

Dr. Lois Dodds (Heatstream Resources President)

Dr. Laura Gardner (Board Vice Chair, SIL Int'l)

Dr. Ron & Bonnie Koteskey (Go Int'l)

Dr. Rhonda Pruitt (Columbia International Univ.)

Board of Trustees

Inhong Cha & Sungeun Cho

Jaehyung Yoon & Sam Kim

Shinho Choi & Sinae Kang

Sojin Yoo & Misook Yoo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Supporter

All Nations UMC

Dongtan Zion KMC

Life in Jesus Church

Onnuri Community Church

OMA-TIM-TIMA-CGN TV

Eunsun Choi & Daniel Lee

Eunsung Choi & Jinjoo Kim

Glovis Alliance Co.

Hoon & Aesook Choi

Hunn & Meesaeng Choi

R. & Grace Chung

Shinho Choi & Sinae Kang

Haekyeong Jeon

Esther Kang

Kyuwook Kang & Jaehee Kim

Peter & Jennifer Sone

Hyaerhun Yim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Bok Hee Youn

Duckhyun Hong & Sungryung Kim

Misook Kim

Hyekyung Lee

Seungkyo Oh

Ken & Patty Pennington



<선교센터 베다니홈에서 청년부 친구들과 식사, 오른쪽 중간이 고하영>

나는 애즈버리 진학 후 친구들이랑 교회를 찾아다니던 중 올네이션스 교회를 만났다. 귀한 청년들이 왔다면 반겨주신 목회자님과 성도님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 지난 4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외롭거나 유학 생활이 불행하다고 후회한 적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낌없이 배불리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라이드 해주시며 아플 때 부모님처럼 챙겨주시는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에 유학생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주일 점심식사는 멈춰졌어도 대학청년들에게는 주일 점심 제공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따뜻한 한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또한 방학 때 집에 못 돌아가 기숙사에 남아 있었을 때,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외롭지는 않을까 가족 여행에 데려가 가족이 되어 주시는 등 사랑과 관심안에서 지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에 기숙사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선교센터에서 맛있는 식사와 선물과 게임을 준비해 주셔서 명절을 가족과 못 보내는 공허함을 채워주셨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대학교를 찾아와 열심히 공부하라고 김밥과 디저트를 챙겨주신 귀한 손길들을 잊을 수 없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계속 됩니다.)

올네이션스 기도 제목

1. 전 세계적인 COVID-19 상황에서도 주의 강한 능력으로 선교사들을 붙드셔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2. 2022년 한 해 동안 올네이션스선교센터를 방문할 선교사-목회자-평신도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베다니 홈에서 참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영육간에 재충전 되도록
3. ANMC의 모든 스태프들이 선교적 영성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4. 협력기관인 온누리교회, OMA, TIMA, CGNTV,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의 연합 사역을 통해 멤버케어와 선교 연구에 발전이 있도록